

「제로금리시대, 보험산업의 영향과 과제」 개회사

(2020.11.16.)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로금리시대, 보험산업의 영향과 과제**"
온라인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그리고 정책당국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험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기꺼이 기조발표를 맡아주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고승범 금통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각계의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금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어
기준금리 0.5%인 제로금리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낮은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비관적 전망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됩니다.

또한, 소비가 감소되고, 투자가 위축됨으로 인해 또 다시 금리가
하락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보험산업은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2019년말,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보여주었으며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0년 전의 1/3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험연구원장으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보험사들이 매년 4~5조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항상 보험사들은 어렵다고만 하느냐?”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세 가지 질문으로
출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보험산업의 **현재 이익수준은 적정한지?**
둘째, 현재 국내 **보험사의 이익구조는 건강한지?**
셋째, 현 보험산업의 이익수준이 적정하지 않거나,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면, **이익 확보를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를 각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찾아가고자 합니다.

부연하면,
현재 이익이 아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익수준을 확인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이익수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익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익 확보를 위해 부채 구조조정 사례를 제시하고
제로금리시대에 대비한 상품 전략을 논의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자산이 아닌
대체투자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을 통해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언급하였듯
현재 보험산업은 탈성장 사회로 진입하여
과거와 같은 사업모형으로의 회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모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보험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